

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서비스가 실효성있게 제공되도록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하겠음

1. 관련 기사

- 9.16.(토) 한국일보, “ ‘성과 좋다’ 평가하고는 외국인 근로자 센터 폐쇄라니” 기사 관련

2. 설명내용

-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, 이러한 방침 하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의 성과·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내년도부터 지원방식을 개편하고 필요예산을 재편성한 것임
- 정부는 기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제공 중인 단계별 체류지원 서비스*와 함께, 외국인 근로자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주말 상담, 지자체와 연계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임
 - * (입국 초) 초기 적응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→ (근무 중) 근무실태 점검을 위한 지도감독 → (귀국 단계) 원활한 귀국 지원을 위한 설명회 및 정보제공
 - 특히,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각종 행정 및 직장생활 관련 상담에 대하여는 연중 무휴로 제공되는 전화상담과 함께 주말 대면상담 등을 검토 중이며,
 -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센터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생활정보 상담, 지역 교류·문화 프로그램과의 원활한 연계를 실행할 것임
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상임 (044-202-7157)
		담당자	사무관	이동현 (044-202-7149)